

전남 스포츠제전 막올랐다

오늘 영광서 도민체전 개막... 선수단 6천여명 역대 최대



전남도민의 스포츠 대축제인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21일부터 4일동안 영광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육상·수영·태권도 등 18개 종목에 22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천825명(선수 3천858명, 임원 1천96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남도의 미래 GLORY 영광에서'의 대회 구호와 '천년의 빛 영광에서 하나되는 도민축제', '친절 영광 꽃핀 우정 가슴마다 전남 사랑'의 표어를 내건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영광군에서 열리게 됐다. 그간 도민체전은 목포·여수·순천·광양 4개시와 해남군에서 순번제로 개최되어 오다 지난 2006년부터 보성군·강진군·고흥군 등 군단위에서 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제전·절약제전의 이미지를 살리는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 행사를 추진한다. 개회식에서 폭죽 대신 영광군을 상징하는 빛을 이용한 레이저쇼를 15분간 펼친다. 둘째, 군지역 개최에 따른 숙소난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읍·면 마을회관을 선수단 숙소로 활용, 여수·순천·나주 등 12개 시·군 1천155명의 선수단이 마을회관을 이용키로 했다. 셋째, 개회식때 도지사 등 주요 인사가 자리하는 단상을 선수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중앙에 설치했다. 이는 예전 스탠드 위 VIP 단상을 설치했던 것과는 차별화 된 것으로 선수단과 거리감을 줄이는 '하나된 축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넷째, 입장식 때 각 시·군의 홍보물을 지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열경쟁 방

지와 예산 집합의 효과를 가지게 된 것. 마지막으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종목별 우수선수상을 새로 만들었다. 개회식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영광 스포터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 개회식은 식전행사로 육상들노래(농악 축하공연)·빛의 타워쇼·화합의 노래 등이 펼쳐지고 선수단 입장·개회 선언·대회기 계양·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성화 최종 주자는 체조 국가대표인 김승일(전남도청·영광고 출신) 선수로 확정됐다. 전남체육회장인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대회를 통해 "도민체전은 전남체육의 가장 큰 잔치이자 도민 화합 한마당이다"면서 "지난해 도민체전을 '친환경 녹색제전'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어내자"고 당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부부로... 쌍둥이로... "체전은 즐거워"

공도 류영균씨 74세 최고령
태권도 윤찬웅군 14세 최연소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하는 전남도민체육대회도 70대의 최고령에서 10대의 어린 학생 그리고 쌍둥이·부부 등 가족 단위 선수 등이 출전해 주위의 부러움과 관심을 끌고 있다.

담양 검도대표로 출전한 박영모(27)·영진씨는 이번 대회 유일한 쌍둥이 선수로 영모씨가 20분 빨리 태어난 형이다.

이번 대회 부부선수는 6쌍으로 그 중 3쌍이 함평군에서 출전했으며 진도·담양·완도에서 각 1쌍씩 출전에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함평군 백기영(63·정구)·정희숙(60·정구)씨는 부부팀 중 가장 나이 많은 60대 커플로 화목하고 건강한 부부애를 과시했다.

현재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기(52)씨도 부인과 함께 담양군 정구대표로 출전해 화제이며 특히 김 부회장은 도민체전에 9년 연속 출전해 오고 있다.



▲함평 배구대표로 출전한 홍창운(맨 왼쪽)·서미숙(맨 오른쪽) 부부가 가족과 나들이 나온 모습.



▲쌍둥이 형제인 담양 검도대표 박영모(오른쪽)·영진씨.

목포과학대 배드민턴부 서우영(58) 감독은 아들과 함께 목포 배드민턴대표로 뛰고, 보성 이경신(50)·두현(24)씨도 부자간 테니스 선수로 출전했다. 화산 탁구대표 오국탁(광주생활체육탁구연합회장)씨는 지난 1976년부터 무려 34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는 최다연속 출전자이다. 순천 공도대표 류영균씨는 74세로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이고, 영광 태권도대표 윤찬웅군은 14세의 최연소 선수로 출

전했다. 이번 대회는 또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참가한 선수도 있지만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국가대표 출신들도 있어 화제이다. 광양시청 불링팀 소속 최복을 선수가 이번 대회 유일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이밖에 김혁(수영)·문정도(사이클·이상담양)·현승환(유도)·유광선(유도·이상여수)·김영훈(볼링·광양) 5명은 예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선수들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5선발 체제... 본격 승수쌓기



KIA, 이번주 두산-삼성 상대 상위권 진입 노력
김상현·박기남 LG서 영입... 타선 무게 잡기

요동치는 순위 싸움, 요동치는 방망이를 잡아라. 사직, 잠실 원정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온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상위권 도약을 준비한다. KIA는 21일 구룡산을 무등경기장 야구장 마운드에 내세워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펼친 뒤, 대구로 자리를 옮겨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20일 현재 SK 와이번스와 롯데 한화 이글스와의 승차가 3게임밖에 나지 않는 등 2009 프로야구에는 박빙의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주 원정 6연전에서 4승2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인 KIA는 6승1무7패로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와 공동 5위를 지키고 있다. 4위 두산과는 0.5게임차, 공동 2위 삼성과는 1

게임차에 불과한 5위다. 두산, 삼성을 제물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KIA의 희비는 '타선의 안정화'에 갈릴 전망이다. 개막 이후 완벽에 가까운 선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1.83의 경이로운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에이스 윤석민이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지만, 선발 6명의 평균자책점은 1.91에 불과했다. 구룡산이 8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서재응·로페즈는 7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다. 광정철과 양현종도 각각 6이닝 2실점(1자책), 5이닝 2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무적의 마운드'를 구축했다. 선발진이 자리를 잡은 KIA는 에이스 윤석민, LG 트윈스와 공동 5위를 지키고 있다. 4위 두산과는 0.5게임차, 공동 2위 삼성과는 1

중간에서 힘을 보태게 된다. 흔들림 없는 마운드에 비해 타선의 부침은 KIA의 숙제로 남았다. 지난주 KIA는 안치홍·나지완·김상훈·이현근·김원섭·최희섭의 홈런 퍼레이드 속에 상대 마운드로부터 32점을 뽑아냈다. 17, 19일에는 장단 33안타를 몰아치며 두 경기에서 서만 23점을 뽑았다. 한편 타자면 거침없는 타선이지만, 박빙의 승부에서는 득점력이 시원찮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에서는 선발 서재응이 7이닝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막아냈지만, 타선이 1점을 뽑지 못하면서 9회 롯데 강민호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0-1로 분패했다. 마운드에 비해 기록이 심한 타선의 무게를 잡기 위해 조범현 감독은 19일 LG와의 트레이드를 강행, 재할 중인 투수 강철민을 내주고 내야수 김상현과 박기남을 데려왔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김중국을 2군으로 배치한 조 감독은 김상현 박기남을 즉시 전력으로 활용해 승률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발전 협력

프로-아마추어 발전위원회 개최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이 올 초 취임 직후 야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22일 마련된다.

KBO는 이날 오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4층 회의실에서 프로-아마 야구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로야구에서 하일성 KBO 사무총장과 장순일 SK 본부장, 이상구 롯데 단장, 윤종화 한화 단장, 이영환 LG 단장, 이상일 KBO 본부장과 각 구단의 스카우트 팀장들이 참석한다.

아마야구 인사로는 김동성 비상대책위원장, 안선호 야구협회 전무이사, 이상현 야구협회 사무처장, 강문길 전 전국대 감독, 이광은 연세대 감독, 장재철 초·중·고 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머리를 맞대다. /연합뉴스

케이블 채널 다원 TV

이번주부터 프로야구 중계

케이블 채널 다원 TV가 이번 주부터 프로야구 중계에 나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TV 중계권 대행사인 에이플리는 다원 TV가 21일 오후 6시30분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부터 프로야구를 중계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다원 TV는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문적으로 방송해 온 채널로 전국 80여 지역에 850만 세대를 시청자로 확보했다. 다원 TV는 스포츠전문 케이블 TV 4사가 18일부터 야구 중계를 중단하면서 스포츠에 뛰어난 기회를 잡았다. /연합뉴스

추신수 연일 '홈런쇼'

'추추트레인'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시진)의 홈런포에 불이 붙었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양키스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방문경기에 좌익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 0-0이던 2회 첫 타석에서 선발 투수 AJ 버넷이 던진 시속 153km짜리 폭풍 낮은 직구를 퍼올려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선제 솔로포를 날렸다. 전날 팀 승리를 이끈 역전 결승 3점포를 터뜨린 추신수는 이를 연속 대포를 쏘아 올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이 홈런은 시즌 3호이자 추신수의 메이저리그 개인 통

산 20번째 홈런이다. 추신수는 4회에는 2사 후 볼넷을 골라 후속 라이언 가코의 좌월 투런 홈런 때 홈을 밟았으나 6회 1사 1루에서는 병살타, 8회에는 좌익수 뜬공에 그쳤다. 3타수1안타 2득점을 올린 추신수는 타율이 0.279(종전 0.275)로 약간 올랐고 시즌 8타점째를 수확했다. 전날 한 이닝에만 14점을 뽑아내며 22-4로 대승했던 클리블랜드는 이날 3-1로 앞선 7회말 호르헤 포사다에게 2점포를 맞는 등 3점을 쫓 3-4로 역전당한 뒤 8회말 2사 만루에서 코디 랜섬에게 싹쓸이 3루타를 맞고 3-7로 패했다. /연합뉴스

박찬호 첫승 실패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홈구장에서 시즌 첫 승리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박찬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터즈스 벙크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8개를 맞고 4실점 한 뒤 0-4로 뒤진 5회말 타석 때 대타 미겔 카이로로 교체됐다. 박찬호는 시즌 첫 패배 직전까지 갔지만 팀이 9회말 라울 이바네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5-4로 승리하면서 또 한번 패전을 면했다. /연합뉴스